

“거문고 그 소리에 한가락 대노라니”

유적지 돌며 부른 時調唱 모아 책 펴낸 ‘한가락모임’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시가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전통의 맥이 연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유일한 장르가 시조이다. 시조는 그 문학적 형태나 음악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말의 특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音步 등으로 볼 때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현재에 살아있다. 어느정도 교육받은 이라면 국민 누구나 대개 시조 한두 수 정도는 외울수 있고, 또 일반시단에 견줄 정도는 못되지만, 시조시단이 형성돼 있어 창작시조집 출간도 아주 뜸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어쩌면 시조의 핵심적 본질이라 할 수도 있는, “짓고 부르고 즐긴다”는 점에 이르면 시조 역시 우리의 다른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죽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저 단순한 독서나 문학적 감상의 대상에 머무를 뿐, 우리들 삶에 시조가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문화적 힘을 가진 채 개입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가락모임(회장 張大烈)이 회원들의 시조 작품을 한데 모아 최근 상재한 「한가락」(서문당)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노래로 불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창작시조들을 모아 엮었다는 점에서 여느 시조집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로는,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이 이른바 음풍농월식의 허장성세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여기 실린 시조들의 소재가 모두 절의를 굳게 지킨 옛 조상들의 유적이라는 데 일차적으로 기인할 것

이다. 말하자면, 이 시조집 「한가락」은 절의를 지킨 옛 선조의 樓亭, 혹은 묘역과 같은 유적지를 답사하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지어 부른 노래로서의 시조들을 한데 모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하나라도 보람있게 계승하자는 뜻으로 자연을 유람하고 유적과 그 멋을 찾으려 노래하던 중, 그 노래를 시조로 적어 책을 펴내게 되었다”는 것이 회장 장대열씨의 말이다.

한가락모임이 처음 결성된 것은 지난해 4월의 일. 이때부터 시조시인이자 한학자인 崔權興씨의 지도로 10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월1회씩 전국의 유적지를 탐방하여 시조를 짓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올3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친 역사유적지 탐방 및 시조 짓고 부르기의 첫 결실이 바로 이 책 「한가락」인 셈이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역사유적지 탐방순을 따르고 있는데, 고려의 유신으로 끝내 조선에 출사하지 않는 왕방거사 怡軒 成汝完의 묘(경기도 포천 소재)를 비롯해, 楊士彦의 金水亭(경기도 포천 소재), 趙昱의 洗心亭(경기도 양평 소재), 聽松 成守琛의 묘(경기도 파주 소재), 壯節公 申崇謙의 묘(강원도 춘성 소재), 耘谷 元天錫의 묘(강원도 원주 소재), 牧隱 李穡의 묘(충남 서천 소재), 생육신 元昊의 觀瀾亭(충북 제천 소재), 冶隱 吉再의 採薇亭(경북 구미 소재), 永玉亭(충북 영이동 소재) 등이 역사유적지 탐방 및 시조 짓고 부르기의 현장공간이다.

이중에는 시조를 남기고 있는 역사인물도



경기도 양평 보산정에서의 한가락 모임 회원들

적지 않아 후대의 학인들이 새로 지은 시조와 서로 어울려 마치 화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예컨대 목은 이색의 경우가 그 좋은 예.

백설이 자자친 골에 구름이 머물러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호을로 서서 갈곳 몰라 하노라
(이색)

떠들던 귀양살인 / 가르침 잘못된가
너무도 컸던 뜻애 / 모시웃 고운 손길
대나무 울삼은 뜻애 / 아는이는 없겠나
(최용천)

한편 한가락모임은 이번의 시조집출판을 앞으로는 연례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추어동호인들의 꾸준한 성의와 노력으로 시조의 생활문화화 가능성의 단초를 열어 보였다는 점에서 ‘한가락’에 거는 주위의 기대는 적지 않다. 다음은 한가락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최권홍씨의 「금수정에서」.

쇠머리 여울 위에 / 시원한 다락 하나 // 거문고 그 소리에 / 한가락 대노라니 // 어느덧 빈하늘 달이 / 물밑으로 내린다.

脱手作業 선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됩니다.

Total Publishing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민기획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